

## "K-푸드 열풍 확장한다" 오뚜기, 日 법인 설립...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등록 2026.06.01 08:39:35



[서울=뉴시스] 오뚜기 CI(사진=오뚜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오뚜기가 해외사업 다변화와 시장 확장을 위해 일본에 진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에 현지 판매법인 설립을 마쳤으며 올해 9월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일본 법인은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에 이은 네 번째 해외거점이다.

일본 시장은 식품 소비 트렌드의 지표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해외 시장이다. 이에 오뚜기는 일본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오뚜기는 라면을 주력으로 삼아 K-소스, 참기름 등 다양한 제품을 일본 시장에 선보인다.

K-푸드 열풍에 발맞춰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회사로서 오뚜기만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고 일본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한국 식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판매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성으로 만든 오뚜기 제품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K-푸드의 먹는 즐거움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 소비자들과 폭넓은 소통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